**하나님 나라의 상상력**

**<골로새서 1장 13-23절>**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일제 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보이지 않게 존재하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존재를 믿고 그것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보이지 않게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온전한 신뢰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 한 것이고, 욕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너무 추상적으로만 느껴지고 잘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일단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프라하 근교의 한 호수공원을 다녀왔습니다.

호수 주위에 아름다운 꽃들과 풀들과 나무들을 보며 호젓한 산책로를 걷는 동안 제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호수 물이 고여있다 보니 물빛이 연두색을 띤 곳이 많았습니다.

한 곳을 지날 때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런 물에서도 물고기가 살아?”

찬찬히 바라보니 그런 물에서도 물고기가 살고 있더군요. 가끔씩 물 밖으로 뻐끔뻐끔 숨을 쉬러 올라오는 녀석들이 눈에 띠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물고기들은 저 더러운 물속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겠지? 썩 맘에 들진 않지만 그것 말고 다른 더 나은 삶이 있으리라곤 꿈도 꾸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현실 속에 들어있는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 관점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와 다른 더 나은 삶을 상상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A.D. 1세기에 소아시아의 골로새에 있던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오래된 편지 글이 그로부터 약 이천 년 후를 사는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저 고리타분한 옛날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A.D. 1세기에 로마제국 하에 살던 사람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오늘날 경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면, 분명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우리와 유사한 상황 속에 있던 과거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는 로마제국이 세계의 많은 지역을 지배하던 때였고, 골로새는 그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던 도시였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 로마제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왈쉬, 실비아 키이즈마트, <제국과 천국>)

우선 이 제국은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통해 기득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의 안정을 꾀하는 체제였습니다.

가부장적 구조를 제국의 근본토대로 삼고, 여성과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권력, 노예에 대한 주인의 권력을 법적으로 옹호하면서 ‘보호자와 예속인’이라는 관계의 틀로 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로마황제는 최종적인 보호자로서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최고 권위의 아버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 자본주의 아래서의 권력관계를 보면 그것이 이 1세기의 사회구조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의류, 장난감, 가구, 식품 등을 생산하는 데 노예노동에 버금갈 만큼 형편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력의 대부분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작물을 생산하는 농사일에는 이 지역의 남자와 여자가 종사하며, 커피농장과 윤락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둘째로, 로마제국은 군사적, 사회경제적 통제에 의해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체제였습니다.

일단 한 지역이 로마군대에 점령당하면, 그 지역은 군인들의 강탈과 행정적인 착취를 통해 로마의 국익을 도모하는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은 갈수록 더 가난해졌고, 결국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지면 자신들의 땅을 팔아 생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힘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어렵지 않게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북반구의 힘센 나라들은 World Bank나 IMF 같은 기구를 통해 경제적 조건을 일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반구가 국제적 부채와 개발원조라는 예속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경제정책으로 부와 자원이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흐르도록 하면서, 또한 군사적 통제를 통해 그런 체제를 더욱 강화시키곤 합니다.

미국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합법적인 정부를 전복시키고 꼭두각시 정부를 세우는 데 깊이 개입해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셋째로, 로마제국은 강력한 신화들에 의해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직역하면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로마제국이 군사적 압제를 계속하면서 그 정당성의 근거로 삼은 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로마제국은 자신들이야말로 전세계의 평화와 풍성함, 번영을 가져오는 장본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제국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신들의 축복이 임했다고 선전합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거짓 신화들이 오늘날 경제 세계화에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구 근대 자본주의를 이끌어온 원동력인 ‘진보의 신화’는 20세기 중반을 지나며 한동안 주춤하다가 오늘날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등에 업고 다시금 자신만만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부,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이것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 신화는 유럽과 북미의 생활방식과 경제 및 군사정책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제국은 민중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제국의 이미지들을 유포함으로써 유지되는 체제였습니다.

당시 로마황제 가이사의 형상은 시장, 광장, 목욕탕, 극장, 경기장, 신전 등에 널려 있었고, 제국의 형상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도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도 회사의 로고와 기업의 광고가 공적인 공간뿐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도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소비주의 풍조를 부추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구사회를 부러워하게 하며, 그와 같은 경제적 진보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놓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늘 가시지 않는 허기 가운데 그저 무언가를 끝없이 소유하려 애쓰면서 세계 자본주의가 차려놓은 상품과 이미지를 소비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이미지들은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의 광고를 통해 전세계로 수출되어, 그것을 향유하는 사회는 번영, 안전, 평등,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속삭입니다.

고대 로마제국에서 선전되던 평화와 번영의 이미지가 불평등과 폭력의 현실을 가렸던 것처럼, 오늘날 광고에 투영된 여러 이미지들은 우리의 생활방식이 낳은 노동착취와 불평등, 국제적 폭력을 교묘히 가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 외에 다른 삶을 상상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말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은 상상력을 감퇴시킴으로써 우리를 둔감하고 타성에 젖게 만들어 더 나은 삶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38년된 병자가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못에 먼저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신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이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써, 그의 시선이 예수님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그의 상상력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게 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제국의 신화와 이미지들의 영향 아래 살던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제국이 요구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꿈꾸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억압적인 힘으로 통치되던 로마제국과 대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제국은 힘없는 자들을 찍어 누르고 강제로 복속시켜 세워지고 확장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희생을 통해 세워지고 그 사랑에 의해 확장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는 권력에 복종하거나 동조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경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경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힘있는 나라에 예속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힘없는 나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의 불의를 분별하여 폭로하고 그 고통 받는 자들과 연대하는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정치적으로는 정의의 모습을 띱니다. 사랑의 정치적 얼굴인 정의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는 언제나 권력 있는 자를 의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만한 경제적, 정치적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제국에서 신의 아들로 숭배되던 가이사의 형상과 대비하여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제국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제국의 사람들은 그 형상을 늘 보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디서나 상품 광고의 이미지들과 기업의 로고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면 무언가 가시지 않는 내면의 갈증과 허기가 해소될 것만 같고, 그것을 사서 쓰면 왠지 내가 더 근사한 사람이 될 것만 같게 만듭니다.

이런 소비주의적 현실 속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은 메마르고 둔감해져 지금과 다른 삶을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때 주어집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우리에게 더 가지라 속삭이는 목소리들을 향해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며 닮아가야 할 이미지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회복해가야 할 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듯 뽐내는 제국의 교만한 권력들과 대비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 즉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권력들, 즉 제국의 권세와 무력에 의해 확립되고 유지되는 현실의 억압적 권력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유래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그 모든 권력과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셔야 할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피조물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시장이라는 기만적인 꿈이나, 민족주의 혹은 소비주의 문화의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에 의해 무시되거나 희생되는 세상의 힘없고 작은 것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각기 제 자리와 역할을 찾으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응집되고 연결되는 지극히 인격적인 우주를 우리는 꿈꾸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바울은 제국의 문화적 신화들과 이미지들에 의해 묶여진 제국과 대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언급합니다.

진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 그것이 진리임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그분이 진리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안에 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공동체입니까?

우릴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스스로를 평화와 번영의 아이콘으로 치장하는 로마제국과 대비하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로마제국은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으로 힘없는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국에 의해 행해진 십자가 형벌의 그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세상에 평화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평화는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불편한 목소리를 제거하고 조용히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평화의 길은 용서와 포용을 통해 놓여집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평화를 이루는 곳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하여 다른 것을 꿈꿀 수 없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을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나라의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이 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